

## 보 도 참 고 자 료

(이 자료는 2006년 1월 일(조건)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총괄	조성재 연구위원
작성일자	2006. 1. 2(월)
매 수	총 15매(표지포함)

제목 : <이념적 좌표를 통해 본 노동운동의 미래> 발표내용

◆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난 3년간 진행하여 온 노동운동 이념연구를 집약하고 정리하는 공개토론회를 2005. 1. 4.(수) 한국노동연구원 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공개토론회 개최취지 및 발표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 순서

- 이상호: 독일 노동운동의 자기정체성 모색과 현실적 딜레마
- 유범상: 위기의 한국노동운동: '진리의 정치'와 이념소통의 빈곤
- 진숙경: 노동운동 이념과 조직 - 자동차 3사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 “이념적 좌표를 통해 본 노동운동의 미래”

## 토론회 개최취지 및 일정

담 당 자	조성재 연구위원
전 화	02)786-3265
매 수	2 매

### □ 공개토론회 개최취지

- 노사관계의 발전은 각 주체들의 올바른 자리매김 속에서 가능할 것임. 이에 따라 한국 노동연구원에서는 노사관계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년여에 걸쳐 진행되어 온 노동운동 이념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 노동운동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외국 사례와의 비교 시각과 생생한 현장의 관점에서 노동운동의 이념적 좌표를 재조명해보고자 함.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 노동운동과 그 이념에 대한 진로를 함께 탐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함.

### □ 공개토론회개요 및 일정

- 본토론회는 2006. 1. 4.(수) 한국노동연구원 대회의실(9층)에서 이루어질 예정임. 토론회는 세계의 주제발표와 그에 따른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총 210분(14:00-17:30)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임. 보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4:05 - 15:15 주제 발표

● 사회 : 최영기(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발제 1】 독일 노동운동의 자기정체성 모색과 현실적 딜레마

- 이상호(진보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발제 2】 위기의 한국노동운동: ‘진리의 정치’와 이념소통의 빈곤

- 유범상(前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발제 3】 노동운동 이념과 조직 - 자동차 3사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 진숙경(고려대 박사과정)

#### 15:15 - 15:30 휴 식

**15:30 - 17:30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김성희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중기 교수(한신대)  
이상학 원장(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조성재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김종각 정책본부장(한국노총)  
박승옥 대표(시민발전)  
은수미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17:30            폐회**

## 독일 노동운동의 자기정체성 모색과 현실적 딜레마

담당자	이상호 상임연구위원(진보정치연구소)
전화	02-786-5911
매수	3매

□ 독일노동조합은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각인된 자신의 존재가치, 즉 자기정체성을 이념, 조직 및 실천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정체성에 대한 모색과정은 정치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큰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고, 내부의사소통의 한계와 조직발전의 관성으로 인해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하기도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서 독일노동운동의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변화해온 노동조합의 이념과 정책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서 확인되는 이념 및 실천논쟁의 역사적 계기들을 살펴보는데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독일노동운동의 발전과정 속에서 그들이 추구한 자기정체성의 내용과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시사점

#### ○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측면

- 독일노동운동의 성장은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사회적 인정”을 받는 투쟁과정인 동시에, 사민당과 노동조합의 긴장관계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갈등과정이기도 했다. 사민당의 의회진출, 특히 바이마르시기 사민당의 집권은 국가권력의 중립화, 자본가와와의 공존, 단계적 소멸을 통한 체제이행이 가능하리라는 기대를 확산시킴.
- 실제로 사민당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수많은 조치들이 실행되었고, 노동자의 시민권적 요구가 반영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사민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의존성강화라는 반대급부를 요구하였고, 이는 즉 바이마르공화국의 안정을 위해 조합원 내부의 반발을 통제하고 사민당

을 위해 인적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 동시에, 사민당의 우경화와 정치적 실책을 비판하는 노동자를 무마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함. 결국 자유노조의 이러한 현실주의노선은 결국 사회주의적 이상을 달리하는 공산주의계 노동자들의 이탈과 분리를 초래하게 된다. 정치적 지향을 달리하는 노동자조직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정 노동자조직의 성공이 결국 다른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노동자조직들의 약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됨.

#### ○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조합의 딜레마

- 2차 대전 이후 연방의회선거의 연속적 패배, 그리고 이념지향성의 희석필요성에 따라 사민당은 계급정당을 포기하고 국민정당으로 자기정체성을 새롭게 구성하게 됨.
- 한편 노동조합은 이미 자신의 조직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정치, 종교 및 이념을 초월하는 통합노조를 조직형태로 확정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노동조합은 정당정치로부터 독립성이라는 자기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민당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이러한 정치지향성의 딜레마는 노동조합내부의 논쟁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음.
- 즉 국민정당의 길을 선택한 사민당에게 있어 노동조합의 조직중심적 이해요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통합노조로 자신의 조직정체성을 확정하고 있던 노동조합에게 있어 사민당의 정치적 동원요청은 노동조합의 내부갈등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게 됨. 이러한 딜레마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게 됨.

#### ○ 1990년대 이후의 시대적 배경과 노동조합의 딜레마

- 더 나아가 9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재통일의 후유증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은 노동조합과 사민당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됨. 계급문제와 교차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적 과제들이 사회갈등영역에 전면화되고, 정치적 이해대립의 중심과제로 설정되고 있음.
  - 경제구조의 서비스화는 노동조합의 중심세력에 대한 제고, 더 나아가 후기

산업사회에서 노동운동의 발전전망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생활양식의 다원화와 개인주의적 성향의 강화는 자본과 노동의 이해대립이라는 고전적 패러다임을 잠식함.

- 이러한 상황에서 사민당은 자신의 전통적 조직원을 만족시키면서 새로운 지지자들을 모아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음. 다렌도르프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민주의시대의 종말”은 사민당이 집권가능성을 상실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핵심 지지층의 축소와 맞물리면서 정책과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노동조합에게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시장과 자본의 압력을 이겨내고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보호와 사회형성이라는 이해대변체적 기능 외에, 다원주의적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노동조합의 목표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음.

## 위기의 한국노동운동: '진리의 정치'와 이념소통의 빈곤

담 당 자	유범상
연 락 처	hourun@hanmail.net
매 수	5매

### □ 논점과 접근법

○ 본 글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해방이후 과도할 정도로 많은 이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들 간, 이념과 정책들 간, 이념과 조합원들 간의 소통의 빈곤으로 인해 이념의 빈곤증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사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이념빈곤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념이란 (정치)세계에 대한 체계화된 태도, 전망, 비전으로서 특정주체의 자신에 대한 이해방식이자 세계에 대한 해석과 실천임. 이런 점에서 이념은 각 세력의 정치세계에 대한 세계관 및 실천지침일 뿐만 아니라 상이한 세력들 간의 가치분배 및 정치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들의 조직과 정책을 통해 이해되어야 함. 따라서 본 글은 노동운동이념을 정치 및 이데올로기 지형, 이데올로기와 노동운동이념의 관계, 노동운동의 조직과 실천이라는 범주에서 서술하고자 했음.
- 본 논문에서 언급된 '소통의 빈곤'이란 이념과 이념 간, 이념과 정책 간, 이념과 대중(조합원, 국민) 간 단절의 상태 또는 소통의 취약한 상태를 의미함.
- 본 보고서가 주로 사용한 자료는 각 행위자들에 의한 일차 텍스트와 이차 텍스트인 기존의 관련 연구물뿐만 아니라, 질적 방법에 의한 관계자 인터뷰 등임. 특히 인터뷰는 각 시대와 정파를 대변하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들은 세평적 사례선택(reputational-case selection)과 이상적·전형적 지도자 사례선택(ideal-typical-bellwether-case selection)의 방법을 혼합하여 선정되었음.

### □ 한국 노동운동 이념의 역사

○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의 역사는 정치주체, 정치상황, 그리고 국가수준의 정치경제 및 이데올로기 등에 따른 노동조합이념 유형의 변화에 따라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표 참조), 이것은 경합, 진화, 분화 그리고 딜레마라는 네 가지 단어로 정리될 수

있음.

- 경합: 전체적으로 친정부적이고 실리적 경향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인 한국노총과 정부에 저항적이고 변혁적 경향을 갖는 노동조합운동인 민주노조 흐름 간의 경합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음. 최근에 와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각의 내부에서 상이한 흐름들이 경합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음.
- 진화: 이런 경합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념은 진화해왔음. 조악한 형태의 반공적·협조적 노동조합주의가 실리적·경제적 노동조합주의로 진화해 왔다면, 인간적 노동조합주의는 변혁이론과 만나면서 전투적 또는 변혁적 노동조합주의 또는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로 진화되어 왔음.
- 분화: 경합과 진화의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특히 1990년대를 경유하면서 실리적 노동조합주의,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그리고 변혁적 노동조합주의로 분화되어 왔음.
- 딜레마: 현재 노동조합주의 각각은 정체성의 딜레마에 빠져 있음. 왜냐하면 자신들의 입장이 현실의 상황에서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임. 변혁적 노동조합주의의 경우 점차 조합원들과 사회로부터 고립화되는 경향이 있다면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흐름의 경우 불균형적인 권력관계로 인해 자신들의 실천이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한편 실리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한 한국노총의 경우 조직에 대한 불신과 이탈, 그리고 정당정치에 대한 실패와 혼란으로 비전과 이념 정립에 있어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임. 즉 각 이념이 자신을 명확히 하면 할수록 현실의 대지 위에서 생존이 불명확해지는 상황, 그렇다고 자신을 실용주의나 대중들의 요구 뒤로 숨기면 노동운동 정체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처해 있음.
- 결론적으로, 노동운동이념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한국의 노동운동 이념은 좋은 지도를 만들지도 못했고 지도에 따라 세상을 그리려는 시도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음. 그 결과 이념은 정치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정치세계의 지평을 넓히는 데 실패했음. 이런 점에서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양적 측면에서 이념과잉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질적 측면에서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음.

(표) 노동운동이념 요약

시기	행위주체	노동조합 이념유형	이데올로기	이념지형의 특징
1 해방 8년 (1945-53)	진평	혁명적 노조주의	사회주의	기형적인 이념지형의 형성
	대한노총	반공적 노조주의	자유민주주의	
2 1970년대	민주노조	인간적 노조주의	기독교 휴머니즘	한국노총의 독주와 이에 대한 저항
	한국노총	협조적 노조주의	자유민주주의	
3 1980년대	전노협	변혁적 노조주의	사회주의	양대노총의 경합과 이념지형의 변형
	한국노총	실리적 노조주의	자유민주주의	
4 1990년대 이후	민주노총	변혁적 노조주의	사회주의	이념의 분화와 정체성의 혼동
		사회개혁적 노조주의	사회민주주의	
	한국노총	실리적 노조주의	자유민주주의	

#### □ 노동운동 이념빈곤의 기원

-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빈곤은 구조적 수준의 원인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내부의 활동 조건과 조직 방식, 그리고 토론문화와 기록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에서 기원하고 있음. 이 중에서 본 논문은 내부요인인 이념집단간 소통, 이념과 정책의 소통, 그리고 이념과 대중의 소통 등 소통의 빈곤현상에 주목했음. 이것은 소통의 빈곤이 한국노동운동 이념 빈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대안을 모색하는 데도 유용하기 때문임.
- 이념집단 간 소통의 빈곤: 노동운동의 각 정파들은 냉전적 자유민주주의라는 기형적인 이념지형과 권위주의 정부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념논쟁을 할 겨를이 없었고 이념그룹이 자기만이 옳다는 진리의 정치와 인맥, 학연, 지연에 기반하여 조직된 측면이 있어서 상호간 논쟁을 기피해 왔음.
- 이념과 정책 간 소통의 빈곤: 노동운동진영은 자신들의 이념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 필요나, 이것을 관철할 통로를 갖지 못하는 사이에 이념은 정책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음. 따라서 이념과 정책은 단절되었고 각 정파는 정책 앞에서 무능성을 드러내었음.
- 이념과 조합원 간 소통의 빈곤: 한국의 노동운동이념은 자신들의 조합원과 소통하는 것에 실패했음. 이것은 기본적으로 레드 콤플렉스를 가진 조합원과 역레드콤플렉스를 가진 활동가 간 상호 소통의 공간을 가지지 못했던 것에 기인함.

- 이러한 소통의 결핍현상은 이념을 동의와 설득의 기제, 실천의 구체적 지침서, 조직과 공동체의 비전의 제시 등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과도한 분파활동을 양산하고 실천을 제약하는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게 했음.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노동운동이념 빈곤의 원인은 이념간, 이념과 정책 간, 이념과 조합원 간 소통의 빈곤에서 찾을 수 있음.

○ 노동운동의 이념차원에서의 대안은 소통의 빈곤 현상의 탈출, 즉 소통의 풍요를 통한 정체성의 정치에서 찾아져야 함. 여기에서 정체성의 정치는 차이의 정치세계를 긍정하면서 소통과 자기정정에 기반해서 현실정치에 개입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음.

- 소통의 빈곤은 정체성의 정치를 통해 극복될 수 있는데, 정체성의 정치는 우선 인맥, 정서, 지역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념의 정체성을 문제 삼아야 함. 이를 위해 우선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과 자신의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보다 풍부하게 해야 함. 하지만 인정은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체성의 정치는 타자와의 공적 경쟁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다른 이념과 경쟁하는 것을 의미함.

- 이념은 정책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야 함. 이념이 상대를 낙인찍고 검열하는 과정에서 자기 종파를 과시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경유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함. 즉 한국의 노동운동은 정책에 녹아들어간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차이를 통해 이념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체성의 정치는 현장의 토론에 기반해서 지도부나 분파의 정체성이 아니라 조직과 정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함. 이것은 정체성의 정치가 현장민주주의 또는 내부민주주의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체화된 이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함.

○ 결론적으로 한국 노동운동에서 정체성의 정치는 빈곤한 한국노동운동이념에 대해 무기의 이념을 버리고 제대로 된 논쟁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소통의 풍요에 기반한 정체성의 정치는 노동운동에게 이념 일반을 버릴 것이 아니라 '무기의 이념' 또는 '빈곤의 이념'을 버릴 것을 요구함. 즉 정체성의 정치는 상대방을 낙인찍고 검열하는 무기로 사용해 온 그런 이념과 다른 이념과 논쟁·경쟁하지 않고 정책과 소통하지 않는, 그리고 더욱이 특정 분파와 그 활동가들만의 정체성으로 기능해 온 빈곤의 이념을 버릴 것을 요구함. 즉 정체성의 정치는 소통에 자기 기반을 두고

정립된 이념, 다시 말해 현실의 이해지평과 이 지평을 관철하는 정책과 실천이 담긴 그리고 이것이 대중적 토론과 동의를 통해 조직의 정체성으로 기능하는 그런 이념을 각 정파와 노동운동이 정치세계에 불러낼 것을 요구함.

- 소통의 풍요에 기반한 정체성의 정치는 이념 논쟁을 소모적인 것으로 보고 실용주의나 냉소주의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이제 소통적 태도에 기반한 각자의 이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념논쟁을 본격적으로 할 것을 권유함. 즉 각 정파의 현실세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지도가 다른 조직의 그것들과 논쟁하고 경쟁할 것을 주문함. 다시 말해 검증받고 수정함으로써 정치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천의 무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함.

## 노동운동 이념과 조직 - 자동차 3사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담 당 자	진숙경
연 락 처	jindorl@dreamwiz.com
매 수	4매

- 한국 노동운동은 신자유주의 체제 편입에 따른 한국 자본주의 경제구조 및 노동시장 질서의 변화 등 노동운동을 둘러싼 객관적 환경의 변화와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노동운동 내부 주체의 한계라는 주·객관적 요인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음.
  
- 노사정위 참여 문제를 둘러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 등은 노조운동 내부의 의견그룹 간 심각한 갈등 구조를 드러냄.
  - 그렇다면 노조 내 정파조직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 조직은 노조운동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 완성차 3사(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의 현장조직을 중심으로 노조운동내 의견그룹, 정파/분파 조직의 위상과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정파조직으로서 현장조직이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정파’와 ‘분파’는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조직 내 의견그룹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혼동을 줄일 수 있을 것.
  - 정파는 더 많은 이데올로기(이념)적 특징을 갖고 있고 리더십을 통제할 수 있음. 즉 정파는 비슷한 이념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간의 모임으로 다른 정파와의 차이는 이데올로기적 특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분파는 특정한 원칙을 가진 정책보다는 승리했을 때의 이득이나 권력 유지에 주목하거나 이권을 쟁기는 그룹으로 전체의 목적보다는 분파 구성원의 이해를 위한 활동에 더 주력함.
  - 자동차 3사 현장조직들은 이념적 가치의 차이로 분리되고 정립된 정파조직의 위상

의 갖고 있음. 그러나 초기의 분화와는 달리 이후 ‘선거를 둘러싼 이합집산’의 과정에서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현장조직은 정파조직을 지향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분파조직으로서 전환되었음.

- 현장조직의 출발은 ‘노조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시작됨. 현상적으로 볼 때 조합원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반발과 그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임.
  - 즉 노조 집행부가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대표자임에 불구하고 사용자(자본가계급)의 이해에 복무하자 이에 대한 반발과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 ‘반민주세력’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계급적 운동 내부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음. 따라서 한국 노동운동의 두 갈래의 이념적 흐름인 민족민주노선(NL)과 민중민주노선(PD) 세력들이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게 됨.
  - 1986년 대우차노조의 대실동(대우차실천동지회), 1987년 현대차노조의 민실노(민주노조실천노동자회), 1988년 기아차노조의 민노회(민주노동자회) 등 1987년을 전후하여 완성차 3사의 최초의 현장조직들이 결성된 데는 이와 같은 배경이 존재.
  
- ‘노조 민주화 = 민주노조 건설’ 이후 현장조직 내 이념적 차이가 가시화되면서 현장조직의 분화가 시작됨. 이때의 이념적 차이는 한국의 계급적 운동의 큰 흐름을 대변하는 NL과 PD 노선간의 대립.
  - 현대차노조의 경우 1995년 계급적 운동 세력의 총집결체로 인식되던 민투위(민주투쟁위원회)가 6대 집행부에 당선된 이후 97년 7대 선거를 앞두고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에 대한 입장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면서 NL노선의 실노회가 조직적 탈퇴를 감행하였고 민투위 내에서 넓은 범위의 PD노선의 세력들이 남게 됨.
  - 기아차의 경우, 1993년 12대 이재남 집행부에 이어 13대 이재승 집행부가 당선되면서 이 과정에서 정파조직들 간의 노조운동에 대한 견해차가 분명해 짐. 그 결과 1996년 PD노선의 평등회와 NL노선의 기노회(기아차민주노동자회)가 조직 분화를 하게 되면 기아차 현장조직의 핵심적인 2개의 흐름을 형성하게 됨.
  - 대우차의 경우, 95년 14대 임원선거에서 보수적인 세력에 다시 집행권이 넘어가자 기존 운동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현장조직 내부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이 과정에서 그동안 현장조직을 지도해 왔던 NL노선이 조직을 탈퇴하여 새로운 대민실

노(대우민주실천노동자회)를 조직하였고, 주류를 이루게 된 PD진영은 민노회(대우민주노동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직 활동을 벌임.

- 완성3사의 경험은 ‘어용노조’라는 공동의 적이 제거되면서, 그동안에 덮고 넘어갔던 내부 활동가들 사이의 이념적 차이가 고개를 들게 됨. 또한 집행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노동조합을 통한 대중 활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정파간의 이념적 차이가 더욱 분명해 짐. 기존 활동의 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견해차는 더욱 두드러지고 결국 조직 분화로까지 이어짐.
- 따라서 노조운동 내부에는 계급적 세력내의 NL, PD 진영과 중도세력, 실리주의적 세력 등 크게 4개의 흐름이 존재.

○ 1995~1996년에 NL, PD노선의 분화 이후 완성3사 현장조직들의 ‘체세포분열’이 시작 됨. 이때부터 진행되는 조직 분화는 비이념적 원인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몇몇 조직 분화에서는 정파조직간 경향성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조직 분화를 가져올 만큼 이념적 차이로 구분하기는 어려움.
- 이때부터 현장조직 내에서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은 “다음 선거에서 누굴 위 원장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차이임. 이를 원인으로 갈리진 현장조직들은 권력지향적인 활동에 집중하게 되고 점점 현장조직간 이념적 차이는 흐려지게 됨.

○ 이념적 차이에 근거한 정파조직들이 자기 조직 이익만을 강조하는 분파조직화 됨.

- 한 회사에 10여개에 이르는 현장조직들이 탄생하자 자기 조직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게 되면서 현장조직 간의 선거연합이 성행하게 됨.
- 조직간 선거연합은 이념적 근접성이나 정세인식, 전술 운용의 공통성 등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누구와 손을 잡으면 선거에 이길 수 있나”에 초점이 맞춰져 왔음. 계급적 세력들의 지지기반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내부에서는 경쟁이 벌어지고, 중도적 세력이나 때론 실리주의적 세력과의 선거연합이 추진되기도 함.
- 이에 대한 반성으로 선거연합을 뛰어넘어 조직적 결합을 추진하려는 현장조직간 통합이 몇 차례 제기되고 실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내는 데는 실패하고 ‘한지붕 두가족’을 형성하다가 다시 분화되는 과정을 겪게 됨.

○ 현장조직 정체성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함.

- 대부분 조합원들은 현장조직들의 이념적 차이를 알지 못함. 심지어는 조직 분화와 통합, 재분리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조직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그 조직을 대표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간 차이를 인식하기도 함. 즉 ‘0노회’는 누가 있는 조직 정도로 알고 있는 것.
  - 이는 비단 조합원들만의 인식이 아니라 현장조직에 속한 활동가들 또한 본인이 속한 현장조직과 다른 조직과의 이념적 차이나 정치노선, 전략전술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못함. 선거를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원 확대로 노조운동의 역사성을 잘 모르는 새로운 활동가들이 영입되면서 조직간 경계는 더욱 흐려질 수밖에 없음.
  - 대부분 조직들이 추구하는 미래 사회의 상을 ‘노동해방’, ‘평등세상’, ‘통일조국’ 등 추상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각 조직들의 이념적 차이가 분명하지 않음.
  - ‘나’를 알기 위해서는 ‘너’를 아는 것이 중요함. 즉 내 조직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과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나’와 ‘너’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필수불가결함.
- ‘정파조직으로서 현장조직’의 위상으로 돌아가야 함.
- 현장조직 활동은 현실적으로 조합원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독선을 막는 등의 순기능적인 측면과 집행부의 공로를 적게 하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자과의 이익을 위해 노조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등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음.
  - 노동조합 조직이 존재하는 한 조직 내부의 견해차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지속, 발전시키려는 현장조직의 존재는 불가피한 것임. 중요한 것은 현장조직이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적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현장조직이 “권력을 얻은 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적 전망을 명확히 하고 이를 조직원뿐 아니라 조합원들과 공유해야 함.
  - 현재 노조 임원선거는 조합원들에게 인물로 대변되는 (현장)조직을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향후 조합원들이 ‘노조운동의 정책적 차이에 따른 (현장)조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직의 노선과 정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함.